

네요.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삼유방산 아랫목인데, 집까지는 족히 4리외도 더 남았어요. 자, 그러니 어서 이걸 잡수시고 힘을 내세요.”

도맹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두 아이에게 과자와 과일, 그리고 약주가 가득 담긴 조롱박을 내주었는데, 그 약주는 포도주와 레몬즙을 섞은 물에다가 설탕과 육두구를 넣어 만든 것으로, 아이들이 원기도 회복하고 갈증도 풀라고 두 어머니가 준비해준 것이었다네. 비르지니는 그 불쌍한 노예를 떠올리며, 그리고 걱정하고 계실 두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지. 그 아이는 넷 빈이고 “아아,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다니!”라는 말을 되뇌었어. 폴과 비르지니가 목을 축이는 동안, 도맹그는 불을 지펴 놓고, 바위틈을 뚫어 순찰나무라 불리는 꾸부렁하게 굵은 나무를 찾아 왔네. 벌써 밤이 다 되었기에 완전 생나무일 때도 불이 활활 잘 타오르는 그 나무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었지. 허나 막상 길을 떠나야겠다 싶던 즈음, 도맹그는 훨씬 더 큰 당혹감을 느꼈네. 폴과 비르지니가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야. 두 아이의 발은 온통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지. 도맹그는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, 아니면 두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밤을 보내야 할지,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네.

“제가 두 분을 함께 품에 안았던 시절은 어디쯤에 가 있을까요?”